

신년사

동근일체 同根一體 명문 청주한문!

화합·동참하고 도전·성취하는 결실의 해로



한태락
중앙종친회장

존경하는 100만 청주한문 일가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희망찬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올 계묘년은 영특한 지혜와 피가 뛰어난 토끼의 특성뿐 아니라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색이 조화를 이루는 해로 어떠한 어려움도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뜻하신 모든 일들을 원만히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켜 보면 대내외적으로나 사회적,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이해당사국 간의 외교적인 대립과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국내 역시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경기침체, 3고 현상 등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종친회 역시 유감스럽게도 일부 종원에 의해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무익한 송사 등으로 종친회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 순탄치 않았음에 훌륭하신 선현분들께서 쌓아놓은 종친회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로 나타나 참으로 면목이 없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친일가분들께서 여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어 새로운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종사 운영과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 일가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금년은 중앙종친회장에 취임하여 3년차에 접어드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문제요인은 하나하나 순리대로 조속히 종결 짓고 송조돈목 대화합으로



안성 고삼호수의 몽환적인 물안개 일출

(출처 경기관광공사)

100만 종친일가분들과 더불어 청주한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하는 결실의 해가 되도록 더욱 힘써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화합단결하고 동참하는 내실 있는 종사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갈등과 불만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 하는 대처에 따라 그 조직의 성숙도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됩니다. 종친회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종친회는 이해관계가 아닌 한 시조를 근간으로 성과 본이 같은 일가붙이끼리의 모임으로 송조돈목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반된 견해가 있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우선시 되는 종친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차제에 중앙회장 선임은 경쟁과 분열이 아닌 대화합의 기반이 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자 합니다.

둘째, 훌륭한 후진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청주한문 후손들의 인재양성의 기틀이 되는, 청주한문을 대표하는 청주한씨장학회가 새로이 발족되었습니다. 어떤 문중이나 가문을 막론하고 명문의 위상은 자손세대로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문의 위상을 영속

적으로 계승해 나가려면 명문을 일궈낸 선조들의 경륜과 위상에 버금가는 훌륭한 후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명문의 위상은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오늘의 우리 세대는 자손들을 훌륭하게 육영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청주한문의 후손들을 훌륭한 미래의 인재이자 국가의 동량으로 육성하는 장학사업 활성화는 중요한 종사의 책무이자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청주한문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장학기금 확충조성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시조부군의 송조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주한씨중앙종친회는 시조묘소 및 유적의 수호보전과 세향을 봉행하며 송조돈종사상을 함양하고 종원의 교양 향상과 도의 양양, 후손에 대한 장학과 제도 및 문화의 창달로 한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주한문을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시조부군의 탄생유지 청한각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편의시설 확충과 시조부군의 강론 터 현장사업과 함께 일대의 유적을 체계화하여 관광 명소화하고 청주한문의 성지로 가꾸어 나가는 사업은 후손들의 필수과업입니다.

또한 전국 8대 명당중의 한곳인 남일면 가산리 소재의 길지에 모셔진 시조부군 묘소를 비롯해 묘소 앞 명당수

정비와 세일재, 신도비, 무농정, 방정, 제단비 등 유적과 발자취를 체계화하여 청주한문의 제2 성지로 성역화해 나가는 사업도 송조선양의 필수과업입니다.

넷째, 익산쌍릉의 수호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익산시 석왕동 소재 사적 제87호인 익산쌍릉의 대왕릉은 우리 청주한씨의 원류인 마한태조 무강왕릉입니다. 정사기록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양식 있는 많은 사학자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짜맞추기식 역사왜곡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강력 대응하여 우리 선조의 유적을 수호하고 뿌리의식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감은 물론 진실 앞에 왜곡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명백백 밝혀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역사적 학술적인 고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체계 또한 재정비하고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적 문화유산인 마한태조 무강왕과 왕비릉의 전승보전에 우리 청주한문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제례 봉행 등 관련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한문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문중 원로분들을 중심으로 일가분들과 소통 수렴을 통해 조직 정비 및 운영재원 조달방안 등 종사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주한문 일가여러분!

올해도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지만 모든 일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 의해 좌우됩니다. 어두웠던 기억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 합니다.

2023년 계묘년은 영리한 토끼의 지혜를 근간으로 만사형통하는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주한씨중앙종친회장 한태락

2022년 壬寅年 시조 위양공부군 세향 봉행

방역수칙 준수, 600여명의 후손 참사

초헌관 台洛중앙종친회장 아헌관 東曝부산종친회장 종헌관 錫九문간공파회장



좌로부터 태락(초헌관), 동경(아헌관), 석구(종헌관)

중앙종친회(회장 台洛)는 지난 10월 25일 (음력 10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위치한 시조부군 묘역(충북기념물 제72호)에서 600여 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임인년 시조부군의 세향 제례를 경건하고 원만하게 봉행하였다. 시조부군 세향은 청주한문의 아름다운 가업이자 시조부군의 음덕을 기리는 숭조·화합돈목의 장으로 매년 1,500여명에 달하는 일가들이 참사하여 성황리에 봉행을 하고 있지만 임인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600여명이 참사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질서정연하게 행사를 마쳤으며, 내년에는 예년과 같이 많은 일가들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한결 같은 격려와 성원을 보냈다.

초헌관에는 태락(台洛)중앙종친회장, 아헌관에는 동경(東曝)부산종친회장, 종헌관에는 석구(錫九)문간공파회장, 축관은 의구(懿九)무강왕수호위원장이 각각 분방되었으며 관우(官愚)중앙회자문위원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제관 분방 별항)

우리 청주한씨의 시조(諱 蘭)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서기 918년 고려를 건국하고 이듬해 평양을 정치기반으로 삼기위한 첫 사업으로 평양성을 쌓게 되었는데 그 막중한 소임을 맡아 태조의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를 쌓았고, 928년(태조 11년)에 후백제의 견훤(甄萱)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지역을 지날 때 10만 정벌군에게 군량미를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종군까지 하여 전공을 세운 공로로 최고의 품계인 삼중대광

개국벽상공신(三重大匡開國壁上功臣)에 녹훈되었고, 벼슬은 정일품 문하태위(門下太尉·국무총리급)에 올랐으며 한 시대의 사표로서 훌륭한 이름을 남기시고 서세하시어 지금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안장되시니 나라에서 위양(威襄-천지는 신묘(神妙)한 위광(威光)으로 강산의 기이(奇異)함을 만들고 영웅(英雄)의 자품을 타고나서 나라의 훈업을 이루었다)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벽상공신이란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한 후 서기 940년(태조 23년)에 신흥사(新興寺)를 중수하고 이곳에 공신당(功臣堂)을 세우면서 공신당의 양쪽 벽(壁)에 고려의 개국공신 중에서도 특별히 큰 공을 세운 공신의 초상(肖像)을 그려 넣으면서 비롯된 호칭이다.

속리산맥을 타고 내려와 황간 땅에 이르러 우뚝 솟은 지장영봉(芝庄靈峰)은 사위(四圍)를 거느리고 멀리 백리에 뻗쳐 영기(靈氣)가 모였으니 이곳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永同郡 黃澗面 蘭谷理)에서 당대의 위인으로 탄생한 시조 위양공(威襄公)께서는 일찍이 청주로 이주하여 방서동(方西洞)에서 용개(龍開)평야를 개척, 큰 부호가 되었으며 무농정(務農亭·1990년 12월 14일 충북기념물 제85호로 지정)을 세워 향학(鄉學)을 일으켰다.

태락중앙회장은 세향봉행에 앞서 진행된 식전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감염예방과 당국의 방역지침 준수 권고 등 금년도 역시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이어지는 중에도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오늘 시조부군의 세향봉행일을 맞아 경향각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참사해주신 일가분들을 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린다. 내년에는 예년과 같이 전국의 남녀노소 많은 일가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인사를 전하고, 이곳 시조부군의 묘소는 전국 8대 명당 중 으뜸인 곳으로 시조부군의 음덕으로 예로부터 근세에 이르기 까지 국가와 사회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수많은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우리 청주한문은 자타가 공인하는 삼한갑족이자 명문거족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시조부군의 세향을 엄숙하게 봉행하고 있다

시조 위양공부군을 비롯해서 수많은 왕비와 상신, 공신 등 훌륭한 선조님들에 이어 최근에는 역사에 유례가 없는 3명의 국무총리를 연속 배출하였고, 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 부장관과 주요 요직에 발탁 선임되는 등 청주한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화합돈목하고 뜻을 하나로 모아 시조이신 휘 란(諱 蘭)을 비롯하여 훌륭한 선조님들의 고귀한 업적과 유지를 기리는 한편 유적 또한 잘 받들고 보존하여 종사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 한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장학사업 활성화 등 훌륭한 후손들로 하여금 찬란하게 계승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시조묘역과 세일재 등 주변 정리와 청소 등 정화작업이 잘 정비되어 있다. 지난주에 문양공파종중회에서 석회회장을 비롯해서 20여명의 종원일가분들과 집행부 임원분들이 참여해서 시조묘역과 4위단의 별초와 정리작업을 수행해 주시었음을 공지해 드리면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린다. 앞으로도 시조묘역을 비롯해 선조님의 유적과 유물의 수호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시조부군의 탄생유지인 청한각과 강도하시던 초당터를 방문하여 초당터 복원에 필요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청한각 인근에 주차장 부지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확보,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하며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시조



태락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군의 유적과 연계하여 충청권의 유적탐방지로 명소화 조성하고 더불어 매년 4월에 봉행하는 시조부군 탄신제를 시조부군 세향봉행 수준으로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문화제 지정 추진 등에 필요한 기반 확충사업이라 할 수 있다.

중앙종친회는 앞으로도 무강왕릉의 지속적인 수호보전 등 선조님의 위선사업과 주요종사를 차질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종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독려한 후 시조부군 및 4위 선조님의 세향 봉행이 엄숙하고 원만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일가분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 감수명예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많이 참석해 주신 일가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명문 청주한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매사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과 활동으로 청주한문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자고 격려한 후 명문의 후예답게 분열과 대립은 절대 지양하고 일가 간 화합돈목으로 단합하여 종사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발전시켜 나가자고 독려했다. 이어 시조부군의 세향에 청장년 후손들이 많이 참여하여 선조님의 유지를 받들고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대와 세대의 변화에 맞춰 휴일로 변경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종론을 모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당부하였다.

4위 선조 임인년 세향 봉행

시조묘역 내 4위단에서

지난 10월 25일(화) 시조부군 세향 봉행에 이어 시조묘역 내 4위단에서 2세, 3세, 4세, 5세선조를 추모하는 4위 선조의 임인년 세향이 관우(官愚·중앙 회자문위원)의 집례로 질서정연하고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제관분방 별향)

당일 세향을 봉행한 4위 선조는 시조 하 2세 옹호군 교위공 휘 영(龍虎軍校尉公 諱 穎), 3세 별장 동정공 휘 상휴(別將 同正公 諱 尙休), 4세 상의 직

장공 휘 혁(常衣 直長公 諱 奕), 5세 신희위 상장군 휘 희유(神虎尉 上將軍 諱 希愈)이다.

4위 선조는 오랜 풍상과 겹치는 세란(世亂)으로 오직 휘자(諱字)와 직함만이 보책(譜冊)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을 뿐 유택(幽宅)이 실전(失傳)된 연도도 알 수 없었고 배위(配位) 또한 실전되어 성(姓)씨마저 전해지지 않아 1985년도부터 시조묘역 내 세일재 좌편에 4위단을 모시고 매년 시조 세향일에 세향을 봉행하고 있다.



4위(2세·3세·4세·5세)선조의 세향을 봉행하고 있다.

1985년 4위 추모설단을 시조묘역 내 추원재(追遠齋)에 4위 신위(神位)를 모시고 예빈경공의 세향 봉행에 앞서 제례를 올려왔었다.

시조세향 제관 분방		산신제 제관 분방
• 初獻官 : 台洛 중앙종친회장	• 司 樽 : 相烈 제전부장	• 獻官 : 斗煥 중앙부회장
• 亞獻官 : 東暉 부산시회장	• 左 奠 : 義傳 제전위원	• 祝官 : 高錫 청성군파
• 終獻官 : 錫九 문간공파회장	• 右 奠 : 在淑 제전위원	• 執事 : 安東 청성군파
• 執 禮 : 官愚 중앙자문위원	• 左 奉 : 允洙 제전위원	
• 大 祝 : 懿九 무강왕수호위원장	• 右 奉 : 政洙 제전위원	
• 謁 者 : 甲傳 문정공파	• 執 事 : 一鎬 중앙부회장	
• 陳 設 : 斗煥 중앙부회장		

	4위단 제관 분방			
	2세 校尉公	3세 同正公	4세 直長公	5세 上將軍公
• 初獻官	鮮敎 충성공파회장	允東 평간공파회장	裕光 찬성공파회장	萬俊 경남도회장
• 亞獻官	相良 참판공파회장	熙泰 장간공파	玆求 절제공파회장	順錫 부산부회장
• 終獻官	孟錫 삼재관리재무	永根 직장공종중	相植 현령공파	命浩 영도회장
이하상동				

◆ 사무처

- 접수·도기 : 康燮(참판공파) 是根(종무부장) 正錫(문정공파) 鉉洙(참판공파) 성구(이랑공파)
- 앰프관리 : 成益(문정공파회장)

- 예복관리 : 順子(부녀부장) 今順(부녀위원)
- 안내·질서 : 청주지역 회원

제전위원 및 전국 청장년 일가 등 20여 명

세향 준비 및 진행 자원봉사

600여 명의 후손들이 참사한 2022년 임인년 시조세향 및 4위 선조 세향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차질 없이 질서정연하게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엄숙하게 봉행될 수 있었음에는 사전준비와 세향 당일의 안내, 질서유지 등 진행을 도운 20여명의 제전위원 및 서울, 경기, 청주 등 각 지역과 종파문중의 일가들과 일부 임원들의 열성적인 자원봉사가 있었다.

중앙회 집행부의 지원을 받은 20여명은 세향일 하루 전에 현지로 내려가 재실 별채에서 숙박을 하면서 세향이 끝날 때까지 청소 정리 및 천막설치,

예복관리, 명부작성, 차량 출입관리 및 잡상인 통제, 접수대 설치 및 헌성금 접수, 시조세향 예행연습, 행사 후의 정리 정돈 등 사전 준비와 진행, 마무리를 위한 업무를 분담하여 차질 없이 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 봉사함으로써 집행부와 일가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칭송을 받았다.

자원봉사 일가

종호, 일용, 근준, 상렬, 시근, 두환, 관우, 태수, 창수, 대석, 강섭, 갑전, 의전, 도영, 현수, 성익, 윤수, 명섭, 임동, 노동, 복연, 옥분, 순자, 금순 (무순·직함생략)



문양공파종중회, 시조묘역 벌초 및 청소 정리 봉사

문양종파종중회(회장 석희)는 시조부군 세향봉행일을 맞아 지난 10월 15일(토) 오전 8시부터 석희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종원이 차량과 장비를 지참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시조묘역 및 4위 선조 설단 앞 벌초와 세일재 경내와 주변의 정리 정돈 작업을 체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수행하였으며 작업 종료 후에는 식사자리까지 마

련해 주심에 중앙회장과 임원 및 종원분들로부터 많은 칭송과 감사인사를 받았다.

한편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동안 일용, 근준, 종호, 두환, 격동, 상열, 윤수일가 등 집행부 임원주도로 세일재 경내 및 주변 청소 정리와 정돈 봉사를 하였으며 중앙종친회장과 종인상무가 함께 동참하였다.

시조세향에 111명, 2,365만원 헌성

태락회장·석구회장 각 200만원
갑수명예회장·동경회장 각 100만원

지난 10월 25일에 봉행된 시조 세향에 참사인원이 예년의 절반정도 이었음에도 태락중앙회장 200만원, 석구

문간공파회장 200만원, 갑수명예회장 100만원, 동경부산시회장 100만원 등 111명의 일가들이 2,365만원의 성금을 헌성하였으며 충성공파 선교회장은 제주로 민속주를 헌성하였다. 헌성해주신 일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헌성한 일가분들 내역 별향)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전국 각지의 청주한문 종현분들께서 물심양면 아낌없이 보내주신 큰 관심과 성원의 덕으로 시조부군 및 4위 선조님의 임인년 세향을 성황리에 질서정연하게 봉행 하였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종사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계묘년 한해도 가내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회장 한 태 락 배상

제16회 고려대전 대제 봉행

청주한문의 선조 여섯 분 위패 봉안

始祖 威襄公·思肅公·西原君·文敬公·恕齋公·夢溪公



고려대전 대제 봉행

양력 10월 15일 토요일,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고려대전에서

지난 2022년 10월 15일(토요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통일동산에 위치한 고려대전(高麗大殿)에서 고려 34대 왕위 및 충신, 공신, 현인 등의 공훈을 추모하고 국태민안과 통일을 기원하는 제16회 고려대전 대제가 유림 및 배향위 문중의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단법인 고려선양회 주최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에 의거 정상적인 행사개최가 어려워 헌관과 제례위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였으나 코로나19의 극복으로 거리두기 시책이 해제됨에 따라 약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제를 봉행하였다.

고려대전에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을 비롯한 34위(位)의 고려 역대 왕과 141개 성씨 문중의 고려조의 충신(忠臣)·공신(功臣) 360위의 위패(位牌)가 봉안(奉安)되어 있는데 우리 청주한씨 문중에서는 시조 위양공(始祖 威襄公·諱 蘭), 사숙공(思肅公·諱 渥·9세), 서원군(西原君·諱 方信·10세), 문경공(文敬公·諱 脩·11세), 서재공(恕齋公·諱 蕝·11세), 몽계공(夢溪公·諱 哲沖·13세) 등 여섯 분 선조의 위패가 동배향위(東背向位) 화열(火列) 42~47에 모셔져 있다.

고려대전은 고려 500년 역사와 문화를 재현 재조명하고 통일의 의지를 되살리고자 착공 12년만인 지난 2007년 8월 준공식을 가졌으며 4만 1,200㎡의 부지위에 건립되었다.

서원군중중 이사회 및 임인년 세향 봉행

장흥면 소재 영모재 및 서원사(10世 諱 方信 사당)에서

서원군파종중회(회장 김수)는 지난 11월 5일 장흥면 삼상리 소재 영모재(永慕齋, 14세 질경공 휘 치형 재실)에서 김수회장 등 종원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결산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을 가결하였다.

김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운 날씨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이사회와 선조님 세향봉행을 위해 경향각지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일가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우리 청주한문은 명문거족으로 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부처의 장관이 임명되었다. 서원군선조님께서는 기울어가는 고려 조정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셨고 외적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충신으로 장군이자 정치가이셨다. 이러한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기신 위인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인재들이 출현하리라 믿는다. 우리는 미래를 어렵게 근심하는 것보다는 밝은 마음으로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필요하다. 우리 청주한문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고 마음을 같이 하는 위대한 선배가 되고 굳건한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고 독려하였다.

이사회에 이어 서원사에서 서원군(휘 방신, 10세)부군 및 예하 선조분들의 세향은 초헌관에 김수회장, 아헌관에 상철이사(충의공파), 종헌관에 덕수고문(장도공파), 축관에 덕수일가가 분방되어 민석봉향회장의 집례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서원군(휘 방신, 미상~1376(우왕 2)은 고려 후기 정당문학, 동지공거, 첨의평리 등을 역임한 관리이자 문신이며 무신으로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서원사 세향 봉행

사숙공(휘 渥)의 5남이다.

상장군을 거쳐 1358년(공민왕 7) 삭방도군민만호부부만호(朔方道軍民萬戶府副萬戶)가 되었으며 1360년(공민왕 9) 추밀원직학사(樞密院直學士)로 동지공거가 되어 정몽주(鄭夢周) 등을 선발했다. 이듬해 동북면병마사로 1362년 안우 등과 함께 홍건적을 물리치고 경성(京城:開城)을 회복한 공으로 1등공신에 책록되고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었다. 1363년(공민왕 12) 원나라가 충선왕의 서자인 덕흥군(德興君)을 고려왕으로 세워 요양군사를 몰아 침입하여오자, 첨의평리(僉議評理)로서 동북면도지휘사가 되어 화주(和州)에 주둔하여 동북쪽을 방비하였으며 1364년 삼선(三善)·삼개(三介)의 무리가 쳐들어올 때 화주로 진군 패하였으나 다시 휘하의 제장을 나누어 삼면으로 공격하여 대파하고 양주를 모두 수복하였다. 그 공으로 서원군(西原君)에 봉하여졌으며, 원나라에서는 홍건적을 평정한 공으로 봉헌대부 비서감승을 제수하였다.

(서원군파종중회 김수회장)

상락회장, 자서전

「갈지(之) 자로 걷지 않았다」출간



서울시 종친회 상락회장이 광진정보도서관이 시행한 2022년 시니어 자서전쓰기 사업을 통해 지난 9월 「갈지(之) 자로 걷지 않았다, 사진」을 출간(도서출판 북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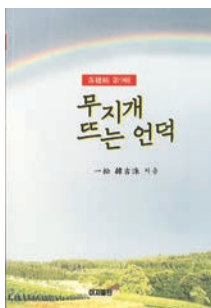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긴다 라는 속담이 떠올랐다. 10년 만에 손자가 탄생하니 손자를 위해 무엇인가를 남

기고 싶었다.

2015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2016년 12월 구 참여예산과 보훈처의 지원으로 삼일공원에 독립선언문 기념비, 대형 태극기를 세우고, 2018년 윤관순 열사 동상, 공원 입구(남성초정문 등곶길) 벽에 독립기념 관련된 타일 벽화 부착했고, 무궁화 꽃 심기 등으로 이름뿐인 삼일공원을 역사적, 문화적 취지에 어울리도록 조성하여 3.1운동 정신과 역사를 바르게 알리는 교육장으로 탈바꿈 하는 삼일공원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는 상락회장은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봉사시간 7천시간,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김수회장, 落穂帖 제9집

「무지개 뜨는 언덕」출간



서원군문중 김수회장(시인, 수필가)이 지난 9월 낙수첩 제9집 「무지개 뜨는 언덕, 사진」을 출간(이지출판)하였다. 한

10월에 낙수첩 제1집 「금혼일」을 출간한 이래 12년 만에 제9집을 출간하였으며 앞으로 제10집까지 완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제2회 서울 시우문학상과 한맥문화사 2018년 수필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서울시 시우문인회장과 한맥문화가협회 수석부회장, 현대문예작가회 회원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시고 (재)청주한씨장학회 감사와 (재)임피중학교 동문장학재단 이사장직을 수행 중이신 一松 吉洙회장의 정열과 노익장에 경의를 표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장순왕후 562주기 기신제 제향 봉행



공릉(장순왕후 능)

1월 14일 금요일, 파주 공릉에서

예종대왕비(睿宗大王妃) 청주한씨 장순왕후(章順王后, 1445년 2월 22일(음력 1월 16일)~1462년 1월 5일(1461년 음력 12월 5일)의 제562주기 기신제 제향이 지난 1월 14일(토)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공릉(恭陵)에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주최,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공릉봉향회 주관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예종(睿宗)의 정비인 장순왕후는 상당부원군 충성공(上黨府院君 忠成公 諱 明澮)과 황려부부인 민씨(黃驪府夫人 閔氏)의 셋째 딸로, 16세 때인 1460년 세자빈(世子嬪)으로 간택되어 당시 세자였던 예종과 가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으며 정숙한 성품에 아름다운 용모로 시아버지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책봉 이듬해인 1461년 음력 11월

30일, 왕실의 적통인 원손(인성대군)을 낳았으나 같은 해 음력 12월 5일 녹사(錄事) 안기(安耆)의 집에서 산후병으로 향년 17세로 요절했다.

시호는 휘인소덕장순왕후(徽仁昭德 章順王后)이며 장순은 온순하며 너그럽고 아름다우며 어질고 자애롭다는 뜻을 담고 있다.

능호 공릉(恭陵)은 능 아래쪽의 홍살문에서 정자각에 이르는 길인 참도가 ㄱ자로 꺾여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참도는 원래 직선으로 만들지만 자연 지형에 어울리게 조영한 것이며, 조선 왕릉 중 참도가 꺾인 곳은 공릉, 정릉 그리고 다소 조성 내역이 다른 단종의 장릉 등이다. 한편, 파주삼릉(공·순·영릉)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순릉에는 장순왕후 자매 공혜왕후(恭惠王后, 성종의 원妃)가 모셔져 있다.

안순왕후 525주기 기신제 제향 봉행



창릉 제향 봉행

1월 9일 월요일, 서오릉 창릉에서

예종대왕 계비 안순왕후(安順王后, 1445년 4월 18일(음력 3월 12일)~1499년 2월 3일(1498년 음력 12월 23일)의 525주기 기신제 제향이 지난 1월 9일(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창릉(昌陵)에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주최,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창릉봉향회 주관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청주한씨 양혜공파문중에서는 득수수석부회장, 경섭부회장, 재운총무이사 등 많은 후손들이 참석하였으며 득수수석부회장이 아헌관으로 제례를 봉행했다.

예종의 계비인 안순왕후는 청천부원군 양혜공 한백륜(淸川府院君 襄惠公 韓伯倫)과 서하부부인 임씨(西河府夫人 任氏)의 딸로, 왕세자 시절 예종의 세자빈이었던 장순왕후가 1461년에 요절하자, 1462년 세자빈에 간택되었고 1468년 예종이 즉위하면서 왕비에

책봉되었다.

1469년 예종이 보위에 오른 지 13개월 만에 흥서하자 원자(元子)인 제안대군의 보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예종의 형이었던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잘산군(孝山君: 성종)이 예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고 인혜대왕비(仁惠大王妃)로 존호를 받았다. 소생으로는 효성이 지극한 제안대군(齊安大君)과 현숙공주(顯肅公主)가 있었으며, 1498년 음력 12월 23일 경복궁에서 승하하여 창릉에 안장되었다.

시호는 인혜명懿昭徽齊淑安順王后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창릉(사적 198호)은 서오릉에 조성된 최초의 왕릉으로 왕릉과 왕비릉은 동원이장식(同原異岡式)을 이루고 있으며, 석물(石物)의 배치는『국조오례의』의 예에 따랐다. 고석(鼓石)의 문양과 석난간(石欄干), 대석주(大石柱)의 주두양식(柱頭樣式)이 특이하다.

광역시·도회장단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광주광역시 소재 봉강재에서

전국 광역시·도 회장단협의회(회장 동경)는 지난 11월 30일 중앙회 대락회장과 동경회장을 비롯하여 상락, 갑수, 상원, 만준, 격동, 철호회장, 광주종친회(회장 상원)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소재 봉강재(8세 제학공부군 재실)에서 2022년도 마지막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종사 현안을 비롯해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도 더욱 화합 단결하고, 전국의 많은 종원분들이 종사 운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위해 독려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회의와 식사 후 상원회장의 안내로 지역 명승지를 관광하는 등 시종 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새해에 반갑게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면서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광역시·도 회장단협의회 개최 기념, 봉강재

2023년도 조선조 청주한문의 왕비 향후 제향 일정 안내

공혜왕후(성종대왕비) : 5월 9일(화) 11:30 순릉(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인열왕후(인조대왕비) : 6월 17일(토) 11:30 장릉(파주시 탄현면 장릉로 90)
 소혜왕후(덕종대왕비) : 10월 16일(월, 음 9월 2일) 11:30 경릉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32)
 신의왕후(태조대왕비) : 10월 29일(일) 11:30 동구릉 내 건원릉 정자각
 (구리시 동구릉로 197)
 종묘대제 : 5월 7일(5월 첫째 일요일) 종묘

운영회비 및 종보구독료 납부 안내

존경하는 임원 및 일가여러분!
 코로나19의 지속과 경기침체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만 송구한 마음으로 운영회비 및 종보구독료 납입을 부탁드립니다.
 임원 및 일가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운영회비와 종보구독료는 청주한문 100만 종친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중앙종친회의 운영 재원입니다. 임원 및 일가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계좌송금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종보에 첨부된 지로용지 이용 (입금자 성명 및 주소 등 기재)
- ▲입금 후 중앙종친회로 연락 바랍니다 (02) 720-6370/1)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중앙종친회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2021년도 결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추인

중앙종친회(회장 태락)는 지난 12월 20일(화) 11시 신촌소재 K-Turtle에서 태락회장, 김수회장, 동경회장을 비롯해 종파문중 및 광역시도회장과 대의원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성원보고와 개회선언 후 국민의례, 주요참석임원 소개, 경과보고에 이어 세입합계 1억 7,773만원, 세출합계 1억 7,095만원, 이월금 677만원의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청한각의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7천만원과 운영비 및 소송대응 비용 충당을 위한 찬조금 증액 등 전년도 예산대비 9,400만원이 증액된 2억 9,300만원 규모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의의안을 추인 가결하였다.

본 임시총회는 지난 6월 정기총회 시기 의결된 안건이었으나 일부 종원이 총회결의 무효의 소 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고 투표용지를 통해 무기명 찬반 가부를 물어 추인을 받는 절차로 이행이 되었다.

태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여러모로 바쁜 시기임에도 김수, 동경회장 등 종파회장과 시도회장분들을 비롯해서 경향각지에서 임시총회에 어려운 발걸음을 하여주신 대의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정말 기쁘다. 보통 12월이 되면 한해를 총 정리하는 결산의 시기이다. 그



2022년도 제1차 임시총회

런 의미에서 2022년 임인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국가적으로나 쉽지 않은 한 해 이었던 것 같다.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와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 파업 사태, 개헌의 불안, 부동산시장의 변동, 물가상승 등 총체적인 어려움이 처해있는가 하면 남북문제, 여소야대의 정치적인 불안요인들이 혼재한 힘든 한해였다고 여겨진다. 임인년을 보내면서 불안한 요인들은 말끔히 사라지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은 것이다. 우리 종친회 또한 한해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것 같다.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일부 종원들에 의해 회장

및 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회장 선출 무효소송의 사건, 총회결의 무효 소 제기 등으로 인해 종친회 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으로 작용되어 왔다. 회장 및 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건은 2022년 9월 30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결정되었고, 회장 선출 무효 소송 또한 지난달 11월 23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이 났다. 결과가 어떻든 종친회 운영에 있어 회장으로서 마땅히 무한 책임이 따릅니다만 청주한문의 선조님들의 위대한 업적과 명성 그리고 선조님들께서 쌓아놓은 종친회 위상을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로 나타나 참으로 면목이 없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열리는 임시총회 또한 일부

종원들의 총회결의 무효 소 제기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원회의, 고문원로회의 등을 거쳐 결정을 하게 되었다. 우리 청주한문 중앙종친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구성원이다. 고소인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보다는 공동체를 더욱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우리 종친회의 가장 으뜸 덕목인 송조돈목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존경하는 종원님께서 우리 종친회가 새로운 각오로 화합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한번 오늘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대의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되돌아보시며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계묘년에는 나라도 안정되고 우리 종친회도 더욱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 청주한문 100만 종원의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충만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임시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갈등이 내포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한편 당일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단을 비롯한 다수의 대의원분들은 중앙회장 선임은 경쟁과 분열이 아닌 대화합의 기반이 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차제에 제도를 개선해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아 제안하였다.

중진고문 및 원로회의 개최

회장선임 제도 개선 및 화합 방안 등 모색 권고

중앙종친회(회장 台洛)는 지난 12월 13일(화) 중앙종친회 회의실에서 김수명예회장, 태락회장을 비롯하여 김수, 선교, 동경, 상영, 창교위원장 등 17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진고문 및 원로회의를 개최하고 종사현안에 대한 논의 후 중앙회장 추대선임을 위한 제도 개선, 화합 도모를 위한 저해요인 발본 등 대응적인 차원에서 큰 뜻을 하나로 모아 종사를 선도하고 한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 독려하였다.

태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종사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오신 중진고문님과 원로분들



중진고문 및 원로회의

께 감사드리며, 종사발전에 기여하신 높은 해안과 경륜 등 다양한 고견을 종사운영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고문님과 원로님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7면 하단 좌측에 계속>

장학회 2022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재)청주한씨장학회(이사장 태락)는 지난 11월 24일 태락이사장을 비롯해 이사 및 감사와 장학후원회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안심의와 장학재단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22년도 주요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지난 1년간 출연 받은 장학기금 3억 4천만원을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여 기본재산을 36억 9천만원으로 증자하는 정관변경의 건을 가결하였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일



2022년도 제2차 장학회 이사회

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효동, 연동이사의 사의를 수용하고 근우이사와 관우이사를 새로이 보선하였으며 임기가 만료된 선교감사의 연임을 결의하였다. <7면 하단 우측에 계속>

운영회비(10~12월)		단위:원
이름	금 액	
유광 부회장(찬성공파회장)	1,000,000	
재국 부회장(판사공파회장)	1,000,000	
격동 부회장(충남도회장)	500,000	
광식 부회장(울산시회장)	500,000	
동석 부회장(전교공파회장)	500,000	
장훈 부회장(충북도회장)	500,000	
상영 자문위원(경기 의정부시)	300,000	
근수 자문위원(충남 청양군)	200,000	
기인 자문위원(경남 창원시)	200,000	
대현 자문위원(서울 강북구)	200,000	
재수 자문위원(경북 칠곡군)	200,000	
창교 자문위원(서울 성북구)	200,000	
춘섭 자문위원(경기 성남시)	200,000	
태교 자문위원(서울 노원구)	200,000	
기달 겸임이사(서울 강북구)	200,000	
기조 겸임이사(경북 구미시)	200,000	
상돈 겸임이사(공주시회장)	200,000	
상복 겸임이사(충북 충주시)	200,000	
상엽 겸임이사(경기 안산시)	200,000	
석우 겸임이사(용인시회장)	200,000	
선희 겸임이사(청양군회장)	200,000	
윤구 겸임이사(충북 청주시)	200,000	
윤수 겸임이사(전북 익산시)	200,000	
의구 겸임이사(경기 안성시)	200,000	
의전 겸임이사(경기 양평군)	200,000	
재근 겸임이사(전북 완주군)	200,000	
전수 겸임이사(전북 군산시)	200,000	
황 겸임이사(경기 고양시)	200,000	
상필 겸임이사(경기 하남시)	100,000	
진수 겸임이사(인천 강화군)	100,000	
경수 운영위원(경기 여주시)	100,000	
기덕 운영위원(강원 춘천시)	100,000	
덕원 운영위원(경남 창원시)	100,000	
동진 운영위원(경기 화성시)	100,000	
만구 운영위원(충북 충주시)	100,000	
상억 운영위원(서울 영등포구)	100,000	
성규 운영위원(서울 구로구)	100,000	
영수 운영위원(경기 김포시)	100,000	
영호 운영위원(곡성군회장)	100,000	
우석 운영위원(전남 영광군)	100,000	
천우 운영위원(전북 김제시)	100,000	
합 계	9,800,000	

일반찬조헌성금(10~12월)		단위:원
이름	금 액	
태락 중앙회 회장	20,100,000	
삼량 수석부회장	1,400,000	
갑수 부회장(대전시 회장)	1,100,000	
의구 겸임이사(경기 안성시)	1,000,000	
참의공충지공파	1,000,000	
선교 부회장(충성공파회장)	200,000	
상락 부회장(서울시회장)	100,000	
종엽 부회장(경기 남양주시)	100,000	
합 계	25,000,000	

개인종보비(10~12월)		단위:원
이름	금 액	
총수(충북 진천군)	120,000	
광(서울 노원구)	100,000	
정식 부회장(제주도회장)	100,000	

규백 부회장(회양공파회장)	50,000
근수 자문위원(충남 청양군)	50,000
기석(서울 강동구)	50,000
두만(경북 안동시)	50,000
명철 자문위원(서울 성동구)	50,000
상훈(경기 고양시)	50,000
신재순	50,000
재동(경기 용인시)	50,000
갑동(경기 하남시)	30,000
기석(서울 노원구)	30,000
동순(전남 해남군)	30,000
상남(서울 구로구)	30,000
상복(경기 안성시)	30,000
상복(전북 익산시)	30,000
상은(서울 관악구)	30,000
상철(경기 성남시)	30,000
석두(울산 북구)	30,000
영상(경기 양평군)	30,000
영석(경남 합천군)	30,000
영수 운영위원(경기 김포시)	30,000
용관(서울 송파구)	30,000
원열(전북 완주군)	30,000
장선(전남 보성군)	30,000
정용(전남 보성군)	30,000
종훈(경기 구리시)	30,000
진수 겸임이사(인천 강화군)	30,000
진택(경기 의정부시)	30,000
태식(경기 안양시)	30,000
경석(경기 시흥시)	20,000
경희(경기 의정부시)	20,000
기대(서울 강동구)	20,000
기호(서울 도봉구)	20,000
덕근	20,000
덕수(서울 금천구)	20,000
동명 겸임이사(서울 영등포구)	20,000
동수(서울)	20,000
면희(서울 서초구)	20,000
병호(서울 서초구)	20,000
상봉(서울 종로구)	20,000
상욱(경기 남양주시)	20,000
상태(인천 강화군)	20,000
성명,주소미상	20,000
세희(인천 연수구)	20,000
영수(제주 제주시)	20,000
우영(서울 마포구)	20,000
정석(서울 금천구)	20,000
종철(전남 강진군)	20,000
희달(경기 안산시)	20,000
합 계	1,720,000

단체종보비(10~12월)		단위:원
이름	금 액	
인천시종친회(천식)	300,000	
강북도봉종친회	200,000	
공주시종친회(상돈)	200,000	
양해공파종중	200,000	
순천시종친회	100,000	
여주시종친회	100,000	
청양군종친회	100,000	
청주시종친회(경덕)	100,000	
합 계	1,300,000	

장학기금(1~12월)		단위:원
이름	금 액	
교유번호	이름	금액
1755	광천공단위장학회(추태)	190,000,000
2242	직장공중중	100,000,000
933	국산공단위장학회(갑수)	35,000,000
122	기인(경남 창원시)	15,000,000
1751	기현(세마공중중)	1,000,000
1978	동욱(충남 계룡시)	150,000
258	철수(서울 관악구)	100,000
884	정수(광주쌍호중중)	100,000
2243	기동대전중기 대전종친회	100,000
합 계	341,450,000	

시조세향헌성금		단위:원
이름	금 액	
태락(중앙종친회장)	2,000,000	
석구(유적관리부회장)	2,000,000	
갑수(명예회장)	1,000,000	
동경(부산종친회장)	1,000,000	
기인(경남향교재단이사장)	500,000	
의구(무강왕수호위원장)	500,000	
인천연수구종친회(총수)	500,000	
절제공파종중 일동	500,000	
찬성공파종중(유광)	500,000	
참의공파인산종중(승은)	500,000	
청한산악회	500,000	
경기도종친회(광전)	300,000	
경기도종친회일동	300,000	
광주광역시종친회	300,000	
동수(충북 음성군)	300,000	
문간공파참판공중중(상량)	300,000	
부산종친회	300,000	
삼량(수석부회장)	300,000	
삼재관리위원회(철호)	300,000	
상식(절도공파대구경북이사)	300,000	
양해공파종중(도수)	300,000	
전남진도군종친회	300,000	
회양공파종중	300,000	
검교참판공파종중(진수)	200,000	
경남종친회(만준)	200,000	
김천아포읍종친회(희태)	200,000	
대구경북종친회 일동	200,000	
대전종친회(갑수)	200,000	
동수(중앙회 감사)	200,000	
마포종친회원 일동	200,000	
문간공파종중(석구)	200,000	
문양공파종중(석회)	200,000	
문정공파종중(성익)	200,000	
서울시종친회(상락)	200,000	
서원군파종중(길수)	200,000	
울산시종친회	200,000	
인천시종친회	200,000	
전북도종친회	200,000	
참의공(회충지)파종중(근준)	200,000	
참의공파진도종중	200,000	
참판공연기현감종중(운섭)	200,000	
충남종친회(격동)	200,000	
충북도종친회(정훈)	200,000	
총의공파종중(찬규)	200,000	
평간공파봉찬회	200,000	
평해공파수원종중	200,000	
현령공파종친회	200,000	

갑전(논산참봉공파)	100,000
강북도봉종친회	100,000
강화판사공파종중(재국)	100,000
경북구미시종친회(기조)	100,000
관우(자문위원)	100,000
광진성동종친회(수창)	100,000
근수(참의공파고문,청양)	100,000
기태(정해공파29세)	100,000
기학(경북 안동시)	100,000
논산종친회(광석)	100,000
달섭(자문위원)	100,000
대석(양절공파,부산)	100,000
목사공회정부파(홍수)	100,000
문열공파종중(기천)	100,000
봉사공파종중(평택)	100,000
부산영도종친회(승구)	100,000
비인공파종중(윤동)	100,000
사북시정공파종중(기학)	100,000
삼괴종친회(경기 화성)	100,000
상길(남일면 가종길)	100,000
상범(수원종중)	100,000
상용(강원 원주시)	100,000
상용(안양공파)	100,000
수동(충남 천안시)	100,000
수창(경기 양평)	100,000
순재(부녀부장)	100,000
시근(종무부장)	100,000
안산대일종중(동후)	100,000
여명공파종중(천동)	100,000
영섭(충성공파16대손)	100,000
용구(참의공파진도회장)	100,000
원주시종친회	100,000
월포공문종대문계(이환)	100,000
이조정랑공파종중(두환)	100,000
인천강화종친회	100,000
장도공파종중(만교)	100,000
재숙(문정공파,나주)	100,000
전남순천종친회	100,000
전북도김제시종중	100,000
정당공충주계일종중	100,000
정랑공파하승지공중중	100,000
종호(제전부회장)	100,000
진주시종친회(규학)	100,000
참의공영광종친회(우석)	100,000
천안시종친회 일동	100,000
천안종친회(석전)	100,000
청성군(회 승순)종중	100,000
판관공파종중(연동)	100,000
판준(진도군종친회장)	100,000
팔봉왕릉종친회	100,000
평택옥천공파일동	100,000
한생(청주)	100,000
현수(참판공중중)	100,000
기덕(천안 상임부회장)	50,000
기숙(천안 여성부회장)	50,000
병연(전남 진도)	50,000
부산북구종친회(용성)	50,000
상문(충남 부여군)	50,000
성교(자문위원,대구)	50,000
안동(락천공파)	50,000
영남(참의공 29세)	50,000
준교(충북 음성군)	50,000
충성공파종중(선교)	제주 3병
만수(대순진리회 선감)	현화, 바카스1박스
합 계	23,650,000

〈중진고문 및 원로회의, 6면에 이어〉

이를 통해 청주한문이 화합하고 종사운 영과 발전방안도 도모하는 바람직한 결과 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근래 여러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 를 끼쳐드림에 송구한 마음으로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하였다.

갑수명예회장은 종친회는 송조돈목과 화합이 가장 큰 덕목이자 근간이다. 분열 과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은 발본 엽단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 종사기반을 견고히 다지 고 명문 청주한문의 위상을 드높여 나가자

고 격려하였으며 시대와 세대의 변화에 따 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시조세향일도 청 장년과 가족단위의 후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기를 변경하자는 의견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회 의 종료 후 당일 중식비용은 상영판서공파 회장이 부담해 주심에 큰 박수로 감사함을 표하였다.

원로회는 종사발전에 기여한 문종 원로 분들의 식견과 경험을 종사에 반영하고 주 요 종사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장학회 이사회, 6면에 이어〉

태락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사회에 많이 참석해 주신 임원분 들께 감사의 전하고 훌륭한 후진 양성을 위해 장학재단의 기금확 충 등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 과 실소득 또한 증대할 수 있는 수 익사업 실현방안을 중점 사업으 로 적극 검토 추진하여 청주한문 의 위상에 걸맞게 이끌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 히고 임원분들의 고견과 적극적

인 성원을 당부하였으며 임원분 들 또한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아 명실상부한 청 주한문을 대표하는 장학재단으로 우뚝 세우고 소기의 목적을 실현 해 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성원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 장학기금 출연 및 기부금 계좌 안내
국민은행 009901-04-171067
예금주 (재)청주한씨장학회

중진고문·원로위원 2023년도 신년모임

중앙회장 초청, 일품당프리미엄에서



신년교례회에서 태락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종친회(회장 태락)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시 갑수명예회장, 화갑(전)평민당대표, 양수(전)충남도지사, 상대(전)검찰총장 등 정·관계 및 각 계각층에서 한문을 빛낸 중진고문분들과 중앙회 원로위원 등 20명이 참석

한 가운데 종로구 내수동소재 일품당프리미엄에서 2023년도 신년인사 교례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국정에 불철주야 바쁘심에도 덕수총리께서 잠시 시간을 할애해 방문하여 주시고 덕담으로 인사

를 나눠주심에 자리가 더욱 빛났으며 참석하신 일가분들은 훌륭한 치적(治績)으로 여러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하고 더욱 발전시켜 청주한문을 더욱 빛내 줄 것을 당부하고 격려하였다.

신년모임에 참석한 임원분들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새해인사를 나눈 후 고문, 원로위원 소개에 이어 중앙회장 신년인사, 내빈 덕담 등으로 진행이 되었다.

태락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자리를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갑수명예회장님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이 참석해주신 고문 및 원로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는 새해인사와 함께 중진고문 및 원로분들의 경륜과 고견을

받들어 청주한문의 화합과 친목을 돈독히 하고 종사발전과 명문 청주한문의 긍지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갑수명예회장, 화갑고문, 양수고문, 상대고문, 길수회장, 장훈회장은 항상 건강한 가운데 종친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명문 청주한문의 긍지를 더욱 높여 나가는 보람된 한해가 되도록 힘을 모아나가자고 덕담하고 격려하였다.

종인상무로부터 종친회, 장학사업, 족보사업과 중점 추진과업에 대한 주요 내용 보고 후 오찬과 건배사 등 화기애애한 가운데 정담을 나누었으며 청주한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차후에는 더 많은 일가분들과 함께 할 것을 기약하며 행사를 마쳤다. 당일 오찬비용은 장훈 종북회장이 부담해 주심에 큰 박수로 감사함을 표하였다.

효섭고문, 제2회 헌정대상 수상

중앙회 효섭고문(사진, 제12대 국회의원, 대한민국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회장)이 지난 12월 19일 대한민국헌정회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전·현직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주최하는 제2회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21년 5월 헌정회와 지회 발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정보 교환 및 화합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결



성된 대한민국헌정회 전국시도지회장협의회 초대 회장에 선임된 효섭고문은 헌정회 운영위원회 부의장과 부산광역시

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부산 한얼고등학교 이사장으로서 한얼공동체 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창수일가, 제주 올레길 52회 완주

홍선암 극복, 걷기운동 적극 권고

창수일가(검교참관공파)가 지난 12월 말 제주 올레길(27코스, 437km) 52회 완주 인증서를 받았다. 창수일가는 2010년도에 홍선암 판정 후 삶의 의욕을 잃고 생활하던 중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하고 서울에서 춘천까지 2일에 걸쳐 걸어서 완주하였다. 이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걷기 도전을 하였으나 대구에서 중도 포기 후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공기가 좋은 곳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제주도로 이주를 하였다. 걷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으로 한라산 정상을 2회 등정하였고, 2011년 3월부터 제주 올레길 걷기를 시작한 이래 11년 만인 지난해 12월 말에 전 코스를 52회 완주(국내 3명)하는 쾌거를 달성하여 협회로부터 표창과 인증메달을 수여받았다.



창수일가(중앙) 올레길 50회 완주 기념

현재 암도 극복하고 건강도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창수일가는 시간이 되는 대로 걷기 운동을 하라고 적극 추천하고 있다.

(검참공파종중회 진수회장)

윤동회장, 김포시장 표창장 수상

제25회 김포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윤동평간공파봉찬회장(사진)이 지난 11월 29일, 김포시자원봉사센터주관으로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 자원봉사로 통(通)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25회 김포시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특히 자원봉사 활동으로 통(通)하는 70도시 김포를 위해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포시장의 표창장을 수상했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기리는 행사에서 표창장을 수상한 윤동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어

려움 속에서도 자원봉사 5,000시간 이상을 수행해 오고 있다.

김 병수 시장은 봉사자들 덕분에 김포시가 한층 더 따뜻한 곳이 되고 있다며 다양한 곳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김포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중앙종친회 계좌번호 안내

◆회비·헌성금·증보대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예 금 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인터넷족보 수단금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예 금 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장학기금 출연기부금

국민은행 009901-04-171067
예 금 주 (재)청주한씨장학회

◆무강왕릉수호기금

국민은행 624201-04-487233
예 금 주 무강왕릉수호대책위원회